

장서표의 역사와 그 활용방안

유럽서 15세기경 발생... 애서정신 상징으로 미술적 가치 커

최석태

미술평론가

장서인과 장서표

개인이 간직하는 책이나 도서관에 간직된 책에 누구누구의 책, 또는 어느 도서관의 책이라는 뜻의 글자가 새겨진 도장이 찍힌 것을 가리켜 장서인이라 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도장이 특히 발달하여 오래전부터 장서인을 써오고 있지만 붉은 빛깔이 묻어 불편하다든가, 좀 다채로울 수는 없는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본 분들이 많을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쉬 마르고 잘 묻어나지 않는 잉크를 쓰고 있지만, 대부분 글자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장서인을 가하는 목적인 소유의 확인 밖에도 다소의 장식이나 교훈적인 효과, 기념적인 의미가 담기기는 어렵다.

유럽문화권에서는 우리와 달리 장서표를 발전시켜 왔다. 장서인의 경우에도 중국, 일본에는 肖形印이라고 하는 그림도장이 많이 쓰이기도 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널리 쓰이지 않았다. 장서표는 글자와 그림이 어울어져 글자로는 가리키는 바의 내용을 직접 나타내고, 그림으로는 내용 이외에도 상징이나 비유의 뜻을 나타내어 훨씬 재미있고 의미깊도록 되었다. 또 무엇보다 따로 만들어서 붙이므로 갖가지 색깔을 가한다든지, 다채로운 형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책을 지니거나 이를 사용하는 이들이 훨씬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쿠텐베르크 혁신과 장서표

이런 장서표는 독일에서 15세기 중간쯤에 생겼다. 가장 오래된 것은 신부인 한스 이글러의 것으로 가로 19cm, 세로 13cm의 크기로 주머니책 만하다. 고슴도치를 그리고 그위에 덧붙여 그린 띠안에 “고슴도치(이글러는 독일어로 고슴도치와 흡사한 발음이 난다)가 당신에게 상처를 낼 것이다”라고 새겨서 함부로 보거나, 가지든가 하면 안된다는 의미를 나타냈다. 또 하나는 가문을 상징하는 소그림이 든 문장을 권 천사가 찍혀져 있고, 그 위에 가톨릭회의 북하임 수도원에 기증한 책이라는 의미의 글씨가 찍어져 있다. 장서표가 소유를 나타내거나, 어느 집안이 기증한 것을 기념하려는 목적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장서표가 독일에서 발생한 까닭은 무엇일까?

15세기 중엽은 독일 마인쯔에 살던 쿠텐베르크가 활판인쇄기술을 고안하여 책을 찍어내

기 시작한 얼마 뒤이다. 그의 고안은 필사본을 대신하는 것이지만 아직은 비쌌으므로 왕후나 귀족, 승려계급에 한하여 책을 접할 수 있었으며, 바로 이러한 귀족품, 새로운 문화산물에 새롭게 고안된 장서표가 붙었던 것이다. 참고로 그가 찍어낸 책은 지금 우리 돈으로 수백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한다.

장서표는 마침 일기 시작한 기운인 독일 르네상스 움직임중에서 미술의 거장인 알브레히트 뒤러나, 크라나흐 같은 화가이자 판화가인 이들에 의해 더욱 풍부하고 매력넘치는 형태로 발전했다. 뒤러는 16세기 초 약 20점의 장서표를 제작한 초기 장서표미술가이기도 하다.

당시까지도 이런 장서표를 주문하는 쪽(표주라고 함)은 황제의 고문관이나 대성당의 참사회 우두머리들로써 당시의 권력자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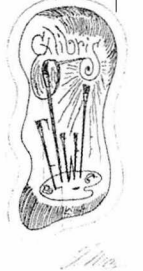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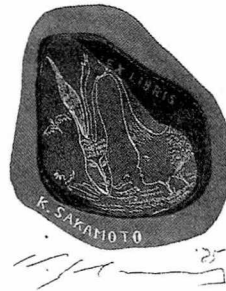
엑스 리브리스, 북 플레이트, 장서표

이 장서표는 곧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각국으로 퍼져갔다. 프랑스에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이미 장서인이 쓰여졌지만 장서표가 도입되자 이내 사라졌다. 장서표를 가리키는 애초의 말 ‘엑스 리브리스(Ex libris)’는 프랑스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라틴어로 ‘누구누구의 책’이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그러므로 글자를 써 넣거나 그림으로 가문이나 소속기관을 가리켰던 것이며, 오랫동안 장서표에는 문장이 판을 쳤다. 이것은 곧 영국, 미국으로도 전해져 엑스 리브리스 외에도 ‘북 플레이트(Book Plate)’로 불려졌다.

동양권에서는 한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 등에 퍼져 쓰이고 있다. 동양에서는 라틴어 ‘엑스 리브리스’를 많이 새겨넣지만 부를 때는 ‘장서표’ 또는 ‘서표’나 ‘장표’라고 부른다. 일본의 경우 장서표모임의 이름에 서표라고 써오고 있으나 보통 부를 때는 장서표라고 하며, 중국도 그런 경향이므로 기왕의 장서인과 엇비슷이 우리도 장서표라고 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

19세기의 대유행과 동북아시아로의 전래

장서표는 19세기 후반기 유럽에서 유행해진 시민 등이 나타나고, 복제기술의 개발로 책이 대량생산되면서 개인장서가 대거 출현하였으므로 성황을 이루었고, 유럽 세력의 팽창과 함께 세계로 퍼졌다.



장서표가 애서운동의 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애서가들의 관심을 끈다. 사진은 여러나라의 장서표.

또 이 시대에는 가문의 문장 따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한 소재를 따기 시작했다. 애독하는 책의 주인공이나, 표주의 직업을 암시하는 그림, 성에 관한 것 등으로. 아울러 당시 인기가들이었던 비어즐리(영국), 막스 클링거, 프란츠 폰 바이로스, 포켈러(이상 모두 독일) 등등이 유명한 장서표 미술가로 등장하였으며, 이름난 작가인 모파상, 빅토르 위고, 플로베르 등이 즐겨 사용했다고 한다.

19세기 말 일본에는 서양의 선교사나 산업 기술지도자들이 많이 들어와 활동하면서 전해진 뒤에 식민지경영으로 부강해지고, 책을 귀히 여기는 관습의 뒷받침을 받아 성행하여 지금까지 활발하게 창작되고 사용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장서표모임의 회원은 세계 최고로 1,500명을 넘었다.

중국에도 일본과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으나 반식민상태, 내전과 혁명의 와중에서 크게 성행하지는 못했다. 1930년대에 잠깐 작가 위따 후우(郁達夫) 등이 사용하거나 수입하였고, 루쉰(魯迅)이 제작한 관화운동에 동참한 리화(李樺) 등의 판화가들이 만들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문화혁명이 실패로 돌아가고 개혁정치가 시작된 1980년대에 들어와 봄비온 뒤 죽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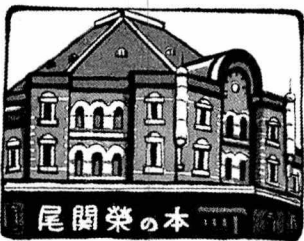
마냥 되살아나 전국의 각省去 연구모임이 생기고, 연중 끊이지 않고 국내외의 장서표전람회 개최 열리는 등으로 급격히 팽창해 세계 장서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대한제국시기 이래 식민지시대에 일본인들이 사용한 것이 있었다. 1941년 10월에는 경성(지금의 서울)의 한 백화점전시장에서 장서표전람회가 열렸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 약 300점이 선보였다고 한다. 식민지시대 이후에도 분단과 대규모 내전의 엄청난 피해로 말미암아 장서표에 대한 관심을 기대하기는 커녕 애서정신도 박약한 상태이다. 현재 온대지역에 속한 문화국가중에서 남·북한을 통털어 우리만 장서표가 쓰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활용하고 만드나

장서표는 판화로 찍혀지며, 책의 속표지나 속장에 붙는 것이므로 사치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서표가 반드시 수공인쇄인 판화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 많은 양이 필요한 공공도서관이나 대규모 개인장서기는 옵셋인쇄된 것을 쓰면 된다.

장서표를 씌으로써 얻어지는 바는 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간혹 판화로 된 장서표는 그것이 소형의 판화이기도 하므로 충분한 감상가치를 지니며 선물이나 마음의 교환에도 도움을 준다.

이것을 더 널리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서점에서는 책을 팔 때 습관적으로 책갈피를 준다. 이를 장서표로 하면 어떨까? 예를들어 어린이책이라면 어린이에 적합한 무늬와 도안, 글씨가 있는 장서표를 주어서 붙이도록 하면 어린이들의 책에 대한 관심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이나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일테니 각자의 취미나 전공, 연령에 따라서, 또 책읽는 풍토를 부추기는 것이나 요사이 크게 문제가 되는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숲이나 동물이 그려진 장서표를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출판사도 자신이 발행하는 책의 느낌에 알맞은 것을 만들면 될 것이다. 값비싼 회귀본일 경우 출판기념 장서표를 발행해 덧붙임으로써 관심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서점(새책서점이나 중고서점을 막론하고)도 마찬가지다.

도서관도 소장도서 이외에도, 기증을 유도하고 그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기증자의 이름과 모습이 곁들여진 장서표를 활용한다면 기증하는 쪽이나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 모두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장서표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판화로 만들고, 도안하여 인쇄하는 이외에도, 동양문화회에서 예로부터 써오던 장서인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국이나 홍콩,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장서표 중에는 장서인을 여러가지 물감에 찍어서 잘라(즉 표로 만들어) 붙이는 형식의 장서표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장서표를 직접 만들면 좋으나, 어렵다면 관심있는 미술가(판화가, 화가, 도안가)에게 넣고 싶은 글이나 그림을 지적해 주문하면 된다.

연구모임과 전시회

자신이 직접 만들지 못하고, 잘 만들기 힘들므로 사용자(또는 수집가)와 미술가로 이루어진 연구모임이나 협회가 생긴다. 이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1992년 현재 약 30개 나라들에 설립되어 있다. 참고로 세계 여러나라의 모임들이 1, 2년에 한 번(현재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모이는 세계장서표회의가 1992년에는 일본 삿쵸에서 열렸다. 이를 기념하는 장서표전에는 28개 참가 나라 중 최국 일본이 116명의 작가가 참가해 1위, 중국이 110명 참가로 2위, 체코슬로바키아(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가 86명으로 3위, 홍콩이 31명으로 4위를 차지했으며,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러시아공화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헝가리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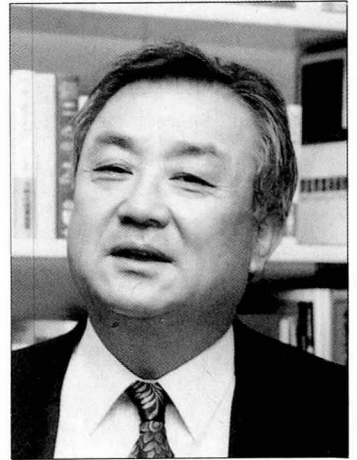
이 행사에 적은 숫자가 참가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와 거의 모든 유럽 여러 나라에도 장서표모임이 있으며, 영국과 미국, 홍콩 일본에는 기성품 장서표까지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예상외로 동유럽 여러 나라와 옛 소련 여러 나라들의 장서표열기는 대단해 옛 소련의 하나였던 리투아니아의 장서표가게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장서표가 진열되어, 팔리고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캐나다, 콜롬비아, 이스라엘, 스페인과 포르투갈, 핀란드 등에서도 성행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이제 이 전시로 장서표 제작과 관심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실정이다.

책을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매개체가 될 장서표에 대한 관심과 연구, 그리고 제작과 활용은 하루빨리 일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얼굴

“환자 위해 약 조제하듯 책 만들어야”

제1회 장서표전시회 연 애서가클럽 여승구회장



애서가클럽은 말 그대로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책사랑’의 척도가 없는 만큼 이 모임의 회원들이 얼마나 책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눈금으로도 읽어낼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이 행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전시회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책사랑’은 깊고도 넓음을 알 수 있다. 회원들 각자 소장하고 있는 책이 저마다 다섯수레는 거뜬히 넘을 것이기에 책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미루어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회원 개인이 이럴할진대 이 모임을 이끄는 회장의 책사랑은 얼마나 클 것인가. 이 모임의 회장인 여승구씨(57, 한국출판무역주식회사 대표)는 회원들의 책사랑을 부추기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다. 여승구 회장의 크고 광활한 목소리에도 어김없이 책사랑 이야기는 담겨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이야기는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데서 시작된다.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출판국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양적으로 보자면 틀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질적으로 우리가 10대 출판국의 자리를 차지할지는 의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955년 고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인연이 되어 책과의 끈끈한 관계를 맺어온 지 38년. 인연의 세월이 깊은 만큼 여승구 회장의 지적은 날카롭고 냉철하다.

여승구 회장이 애서가클럽을 결성하게 된 것도 어쩌보면 냉철한 현실인식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애서가클럽의 창립취지가 ‘책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라는 두가지 항목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책에 대한 애정이야 책의 수집, 보존, 독서, 탐구의 과정을 거쳐 고급문화를 창출해야 한다는 각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책임감’이라는 항목은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책은 국민의 정신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병든 사람을 위해 약을 조제하듯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승구 회장의 말에는 출판계가 내부의 반성과 비판을 받아들이는 겸허한 마음을 가

져야함을 다분히 강조하는 듯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여승구 회장은 독서습관을 배양하는 교육제도의 마련과 유통의 현대화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출판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승구 회장은 애서가클럽을 통해 독서운동의 한 전형을 여러 사람들 앞에 제시한다. 그 운동중의 하나가 이번의 전시회를 계기로 본격화할 체비를 갖춘 ‘장서표운동’. 각종 세미나, 월례회, 줍쌀책운동, 전시회, 애서가상 시상 등과 함께 장서표운동도 책사랑운동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여승구 회장이 원하는 장서표운동은 책을 모으는 재미를 배가 하는 한 방법과 서로 통한다. 재미있는 것은 장서표에 쓰여진 “EXLIBRIS”라는 말의 뜻. “내 장서중의 한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말과 함께 장서표에는 부엉이가 많이 도안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 책을 지키는 눈”이라는 의미로 그려졌다고 한다.

20개국 이상을 돌며 10만여건(문서포함)의 장서를 모은 여승구 회장은 “일본에는 이미 서표협회가 구성되어 있을 정도”라며 이번 장서표전시회를 계기로 우리 독자들과 책사랑이 더 커지기를 희망한다.

여승구 회장은 여담으로 장서수집의 세가지 요소를 던지시 귀땀해준다. 책을 살 수 있는 ‘돈’과 책을 볼 수 있는 ‘지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책을 만날 수 있는 ‘운’도 있어야 한다는 것.

90년 2월 창립때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책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애서가클럽의 여승구 회장은 전시회 준비에 손놀림이 바쁘다. —이성수 기자